

## 새로운 공동체를 향하여 그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DOI <https://doi.org/10.30525/978-9934-26-496-2-3>

정준곤,

교수, 유라시아 재단 일본

Email: chung@eurasia.or.jp

**국문초록.** 세계 새로운 공동체는 글로벌화, 기술 발전, 사회적 변화 등을 통해 형성된 현대 사회의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동체는 전통적인 지역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다양한 형태의 연대와 협력을 포함한다.

우리는 가족, 학교, 지역, 국가, 민족 등등 다양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없으며, 공동체 속에서 나를 설명하고 증명한다. 타인에게 자기 소개를 할 때 이름, 나이와 더불어 소속을 밝히는 것처럼 내가 소속한 '공동체'는 나를 설명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한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은 본인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경험되고 이해되는 것이다. 생명의 탄생을 기뻐하고 이별을 슬퍼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이다. 이처럼 공동체 속에서 인간의 출생도, 그리고 죽음도 경험되고 설명된다.

공동체는 인간이 서로 협력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는 사회적 구조이다. 공동체는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서의 인간 활동을 통해 형성되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크게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소유'와 '관계'로 나눌 수 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내면적 장벽과 제도적 장벽은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발전과 변화의 핵심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내면적 장벽과 제도적 장벽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새로운 공동체를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한 세가지 시점, 시간(時間), 공간(空間), 인간(人間)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어떠한 공동체를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주제어:** 세계 공동체, 소유, 관계, 시점, 시간(時間), 공간(空間), 인간(人間)

# ABOUT THE NECESSITY AND MEANING OF A NEW COMMUNITY

DOI <https://doi.org/10.30525/978-9934-26-496-2-3>

**Chung Junkon,**

*Professor, Secretary General of Eurasia Foundation,  
The Eurasia Foundation, Japan  
Email: chung@eurasia.or.jp*

**Annotation.**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problem of searching for a new scale of values and goals of human activity in the modern world. The new value hierarchy of global consciousness is determined by threats to the existence of nature and society. Values that contribute to the survival of humanity become priority. Various types of human activity are assess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diverse social and natural forms of existence. The prerequisites for the emergence of a global community were created over thousands of years of human history. Currently, we are at the stage of development of the global community; it is important to cognize its future.*

*With increasing clarity and alarm, humanity is beginning to realize that it has entered a fundamentally new era of the world community, which has not yet existed in the history of mankind – a community of survival, when the fundamental question of being in relation to society is being decided – to be, to continue to exist for humanity, or not to be, to stop existing, to disappear from the Earth planet, the human civilization with its material and spiritual culture. The question of being, the existence of the human race as a whole, and, therefore, each of its representatives, is raised and resolved. In this regard,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each person and humanity as a whole are absolutely identical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human civilization.*

**Keywords:** *new community, new technologies, society, space, person.*

## 1. 공동체의 필요성에 관해서

우리는 가족, 학교, 지역, 국가, 민족 등등 다양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없으며, 공동체 속에서 나를 설명하고 증명한다. 타인에게 자기 소개를 할 때 이름, 나이와 더불어 소속을 밝히는 것처럼 내가 소속한 '공동체'는 나를 설명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한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은 본인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경험되고 이해되는 것이다. 생명의 탄생을 기뻐하고 이별을 슬퍼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이다. 이처럼 공동체 속에서 인간의 출생도, 그리고 죽음도 경험되고 설명된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최근에는 개인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고, 사람들은 감사와 겸손 배려보다 더욱 자기중심적이되어 공동체 내에는 분열과 대립과 갈등이 팽배해 있다. 이러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찬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가 바라는 공동체의 본래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공동체의 본래의 모습을 생각하고, 새로운 차원의 공동체를 모색하라는 사인이며 고민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공동체를 떠나 살 수 없는 우리는 고통스러운 공동체, 붕괴되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상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미래의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나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나 민족뿐만 아니라 내일 만날 사람들, 미래의 직장,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꾸릴 가정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미래의 공동체에 대해 상상해 보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이해와 현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제는 침체되었고, 거짓 정보의 범람으로 사회는 더욱 분열되고 혼란스럽게 되고, 또한 자기중심적으로 되었다. 하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정확한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지구상 80억 모두가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국가, 인종, 종교, 이념, 문화, 세대, 빈부의 벽을 넘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 어린이나 노인, 미국의 대통령도,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곧 세계가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앞으로 또 어떤 바이러스가 등장하여 인류를 위협할지 모른다. 여기에 인류 모두가 함께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일본에서는 전국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모금 활동도 있었다. 세계 각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모금 운동, 구호 물품 및 기부 활동 등이 실시되고 있었다. 매일 우크라이나의 정보를 전하는 방송도 있었다. 우크라이나와 수천 키로 떨어진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 민족 이념이나 공간의 벽을 넘어 개인들은 서로 함께 공감하며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이러한 공감과 연결의 현상은 경제분야에서도 볼 수 있다. 본래 경제에 있어서 최대의 자본은 물질과 기술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경제의 가장 큰 자본은 공감과 신뢰이다. 소셜 미디어에서 한 사람이 '좋아요' 를 누르는 것은 별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모여 십만, 백만, 천만, 억, 수십억의 공감을 얻게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정치도 다수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다수의 지속적인 공감을 얻어야 결국에는 권력을 획득 유지할 수 있다. 문화, 예술, 문학에서도 역시 동일하다. 최근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한류(韓流)의 힘은 대단하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국가 민족의 벽을 넘어 세계의 많은 사람들로 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예술이나 문학의 독창적인 창작 활동들은 결국에는 국가, 민족, 이념, 인종 등의 장벽을 넘어 다수의 공감을 얻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는 기존의 공동체 내의 분열과 대립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이처럼 많은 분야에 있어서 기존의 많은 장벽들을 넘어서 사람들간의 공감(연결)이 점점 더 강조되고 사람들은 연결되어 가고 있다.

## 2. 인간의 두 가지 삶에 관해서

우리는 모두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크게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소유' 와 '관계' 로 나눌 수 있다.

소유와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빼어 놓을 수 없는 것이다. 먼저, 소유에 대해 살펴보자. 인간은 누구나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있다. 욕구와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다. 욕구와 욕망을 억제하는 것도 일종의 욕구와 욕망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욕망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인간의 욕구와 욕망은 인간의 자유를 확대시키고, 풍요로운 삶과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즉, 소유를 위한 욕구와 욕망은 기술 문명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여기서 자연과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근대에 들어와 자연과학 분야와 국가와 기업이 손을 잡으면서, 자연과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졌다. 자연과학분야에는 많은 자본과 우수한 인력이 모이게 되고 앞으로 소유를 위한 활동은 더욱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소유만으로 살 수는 없다. 인간의 삶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관계' 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즉 사회적 존재로서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일정한 질서와 조화를 필요로 한다.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윤리, 도덕, 종교 등이 그 역할을 감당했고, 학문 분야에서는 인문과학, 사회과학이 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조화로운 공동체를 영위해왔다.

소유를 위한 삶과 관계를 위한 삶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 그것은 공동체의 붕괴와 인류의 불행으로 연결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를 파괴해서라도 자신의 소유를 위한 선택, 즉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두 가지의 불균형은 가족의 붕괴, 사회의 분열과 대립, 국가·민족간의 분쟁으로 일어난다. 질서와 조화보다 소유를 위한 욕구와 욕망이 압도적으로 강조되고 우선시될 때 공동체는 위험해진다. '자본주의의 몰락', '민주주의의 한계', '역사의 종언'. 이런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소유와 관계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지 못해 생기는 것이다.

소유와 관계의 균형을 위해서는 소유에 관한 것보다, 관계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고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다 나은 공동체를 위한 고민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가와 민족도 상상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라는 정치학자는 “국가와 민족은 우리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상상의 공동체이다.” 라고 하였다.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모두가 좋아하는 돈도 상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이 “우리 인류의 놀라운 상상력이 오늘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라고 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부딪히는 두가지 장벽이 있다. 첫째는 내면적 장벽이고, 둘째, 제도적 장벽이다. 먼저, 내면적 장벽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가치관, 편견, 선입관 같은 것을 말한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 나는 습득한 지식, 정보, 그리고 만나는 사람, 환경 등의 영향으로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며 끊임없이 변화하였다. 즉, 우리는 지금까지 수 많은 장벽들을 넘어 온 것이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런 장벽들을 넘어야 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자극을 수용하며 나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학업을 통해서 이러한 장벽들을 넘어가는 훈련과 연습을 해나간다. 우리 앞에 마주한 장벽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를 발판삼아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두 번째 장벽은 제도적 장벽이다.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그 공동체는 일정한 제도와 규칙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제도와 규칙을 계속 고수해서는 안 된다. 제도와 규칙이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제도와 장벽이 계속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우리에게 내면적 장벽과 제도적 장벽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점이 있다. 첫째, 개인에 초점을 둔 것이 내면적 장벽의

졸업을 위한 것이고, 둘째, 공동체에 초점을 둔 것이 제도적 장벽을 허무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 3.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한 세가지 시점 ;시간(時間), 공간(空間), 인간(人間)

공동체는 넓은 의미로 정의하면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예를 들어, 가족은 가족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 서로를 공유하는 집단이다. 우리는 누구나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이 세가지의 관계를 알아야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다.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시간(時間), 공간(空間), 인간(人間)의 한자를 알아야 한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간(間)'은 '사이와 관계'를 의미한다.

'먼저 시간(時間)'은 영원히 연결-연속된 개념이다. 우리는 현재의 시점을 중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지만, 사실 시간은 연결되고 연속된 개념이다. 시간의 관계는 시간의 길이에 따라 공동체의 개념도 변한다. 가족이라는 개념의 공동체는 길어야 백 년 정도 존재하는 공동체이다. 하지만 수 백 년의 시간이 흐르면 가족은 가족이 아니라 한 사회의 '시민'이나 '국민'으로, 수 천년이면 '민족'으로, 그리고 수 만년이 흐르면 '인류'라는 개념으로 흡수된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는 특정 시점에 이러한 모든 공동체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장소'는 움직임이 없는 정지된 것이지만 '공간'은 이동이 가능하고 자유로운 개념이다. 공간은 원래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인위적으로 구분해 국가나 지역을 구분한다. 국가는 공간을 전제로한 개념이다. 그리고 30년~100년 전에 비해 우리는 정말 다양하고 폭넓은 공간을 경험하고 있다. 다양한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과거에는 갈 수 없었던 공간까지 가볼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상의 공간, 메타버스 같은 가상공간을 경험하고 있다. 과거보다 폭넓고 다양한 공간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또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이란 단어는 일본의 학자가 번역하여 만든 개념이다. 한국에서도 그대로 인간을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다. 인간은 원래 '사회', '세상', '공동체'를 의미한다. 즉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80억 모두를 포함한 개념이다.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리고 미래의 우리의 후손들도 포함해서 '인간'인 것이다. 우리는 나중에는 없어지지만 '인간'이란 존재로 남을 것이다. 우리의 현재의 생각과 고민, 선택은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영향을 받으며 또한 미래에 영향을 줄 현재의 주역이다. 그러한 연결을 위해 우리가 있는 것이다.

공동체는 이처럼 하나의 시간, 하나의 장소, 한 인간과 같이 구분된 개념이 아니라, 연속된 연결된 개념이다. 문학이나 철학에서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 라고 표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위대한 문화와 위대한 문명을 이룰 수 있었다. 그것은 인간이 공동체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자 한 마리조차 이길 수 없지만, 사자 만 마리와 인간 만 명이 있다면 인간이 분명히 이긴다. 이것은 인간이 공동체로서 대응하기 때문이다. 혼자 있으면 나약하지만,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적인 삶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도시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어 다음 세대로 연결시켜간다. 이러한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수단, 도구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것은 '언어'와 문자와 숫자이며, 이것을 통한 개념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체가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표현, 그리고 학문과 종교까지도 예외 없이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최 첨단 AI 기술로 말미암아 생겨난 Chat GPT도 역시 지금까지 인간이 사용한 언어와 문자와 숫자를 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앞으로도 인간은 이 세가지 도구를 사용하며 공동체를 연속시켜 나갈 것이다.

#### 4. 새로운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 다음 세대에 이어갈 것인가? 이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이다. 현재의 인류가 본인의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만 산다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공동체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한 것인가? 최근 우리가 접하는 뉴스는 대부분은 전쟁과 테러, 살인범죄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가지를 합한 것(살인)보다 더 많은 살인이바로 '자살'이다. 자살도 살인의 일종이다.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에 의한 죽음이다. 일본의 최근 2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매년 약2만 명에서 3만5천명이 자살을 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10, 20, 30대의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은 '자살'이다. 최근 자살율로 보면 한국이 세계 최고이다. 필자가 세계를 돌며 각국의 자살 문제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어느 나라든 자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자살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이다. 최근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통계를 보면, 전 세계에서 매년 80만명 이상이 자살을 한다. 자살이 아니라 자살의 전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을 것이며, 자살을 해야 할지 망설이는 사람, 자살을 할 정도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모두 합치면 훨씬 많은 숫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전쟁과 테러, 범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만, 자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자살은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다. 하지만 자살이라는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공동체는 더욱 고통스러운 공동체가 되어 언젠가는 나에게도 돌아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우리의 몸도 매일 엄청난 변화를 거듭한다. 우리의 몸에는 38조개의 세포가 있으며, 매일 100억개의 세포가 죽고 새로 생겨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된다. 변화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국가나 공동체도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원래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화하는 것이다. 지금 남아있는 국가나 기업은 변화를 거듭하여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하다.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일정한 영토 속에서 공통된 제도와 역사적식으로 뭉쳐 하나의 강력한 공동체가 된 것이다. 언어, 의식, 제도, 문화를 통일시켜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것이 현대 국가의 모습이다. 이렇게 형성된 국가는 '공통된 것'을 너무 강조하면 다양성을 부정하고 새로운 자극을 거부하여, 변화를 거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는 국가나 공동체는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 5. 어떠한 공동체를 추구할 것인가?

공동체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하지만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지만 친구가 아닐 수 있다. 그것은 서로가 '모른다'는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로 알아간 뒤에 그 '모른다'는 장벽은 없어진다.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가 어떠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이때, 우리가 서로 모르면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 특히 편견과 선입관, 오해가 있다면 더 많은 장벽이 생기고 만다. 어떠한 연결고리로 서로 묶을까가 매우 중요하다. 21세기에는 새로운 가치관들이 많이 생긴다. 그 새로운 가치관들을 서로 묶어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터키는 지리적으로 보면 국토의 97% 이상이 아시아에 걸쳐있다. 문화나 인구적으로 본다면 90% 이상이 아시아에 속해있다. 하지만 터키의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재미있는 답변을 한다. '우리는 아시아도 유럽도 아니다'라고 한다. 그들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에 속해있고, 유럽 개최의 경기에 참여하며, 유럽 공동체로 가기를 원한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유럽이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공유한다고 해서, 단순히 공간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통된 연결고리 즉 서로를 연결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거기에는 공통된 가치, 목표, 비전, 이해관계를 필요로 한다.

과연 어떠한 공동체를 추구해 나가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힌트를 찾아보려고 한다. 세계 역사 속에는 시대마다 세계를 리드했던 초강대국들이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에이미 추아(Amy Chua)교수는 각 시대를 리드했던 국가들 중에서 초강대국이 된 국가들의 조건들을 분석했다. 패권국가들의 조건은 국토의 넓이나 인구나 자원보다도 다른 국가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다양성과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공동체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의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상위 500대 기업의 약41%는 이민자들이 만든 기업이라는 것이다.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그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하여 오늘날의 미국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는 미래에 국토의 넓이를, 인구를 그리고 자원을 급격히 늘릴 수는 없지만, 미래의 공동체를 선택할 수는 있다. 앞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포용적이며 열린 공동체로 나아가갈 때 우리의 미래는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을 하고 구분을 짓는 경향이 있다. 기존의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하고 보다 폭넓고 다양한 시각으로 볼 때 세계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부분적인 정보만으로 전체를 이해한 듯한 착각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것들이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되고 있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알렉시스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 “만약 당신이 하나의 국가에 대해서뿐만 모르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의 국가에 대해서 마저도 모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한 것처럼, 자기 나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 전체와 연결된 맥락 속에서 서로를 보려고 하는 시점을 가져야한다. 또한 이러한 시점을 갖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습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 대해 깨달음을 주는 한 영상이 있다. 이 영상의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첫째 장면은, 한 남자가 갑자기 여성을 향해 뛰어간다. 둘째 장면은, 그 남자는 여성을 지나쳐 한 남자를 덮친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그 남자는 위에서 벽돌이 떨어지는 위험에 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한 남자를 구해준다. 이 세가지 시점에서 본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변화 속에서 마지막 영상을 통해, 즉 넓고 연속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 남자가 벽돌이 떨어지기 전 그 밑에 있는 한 남성를 구하기 위해 돌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폭넓고 다양한 시점에서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을 마주할 수 있다. 이것은 서로가 자기 중심에서만 타자를 보게 되면 그것이 사실 일지라도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 것을 알려준다.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라는 역사가는, “개인이든 국가이든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않는 한 인류의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다.” 고 역설했다. 폭넓고 다양한 시점에서 세계를 볼 줄 알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력 있는 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6. 새로운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세가지로 요약해 보려고 한다.

첫째, 지역적인 개념에 구속되지 않는 열린 공동체로 나아감을 뜻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다양한 개성과 문화가 존중되는 다양성과 포용력이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변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낡은 장벽을 하나하나 허물며 졸업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다툼이 없고 조화를 이룬 평화로운 세계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단순한 국가 간의 제도적인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제도나 가치관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셋째, 국가를 부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 국가의 본래의 역할' 을 보다 완전하게 하기 위한 변화의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서 국가의 본래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고, 국민이 보다 자유롭고, 보다 쾌적하며, 보다 평화롭고, 보다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 국가' 의 본래 역할에 맞도록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다양한 많은 장벽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며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때, 비로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한 미래에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